



## ‘이’만큼 올라왔다

## ‘나’는 언제 오르나



반전을 이룬 이범호와 반전이 필요한 나지완의 '막판 스피드'다.

KIA는 올 시즌 내내 이어진 마른 타격으로 힘겨운 행보를 이어왔다. 타격 고민의 중심에는 '주장' 이범호와 '4번 타자' 나지완이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때까지도 타격에 꽃을 피우지 못한 두 사람의

방망이에 KIA의 공격은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았다.

개막 후 5월까지 이범호와 나지완은 각각 0.238, 0.164의 타율을 기록했다. 특히 나지완은 48경기에서 단 2개의 홈런으로 7타점을 올리는데 그쳤다. 그나마 이범호는 2할 초반을 맴돌던 타율에도 8개의 홈런으로 29타점을 올렸다.

지독한 부진 뒤 나지완이 먼저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다. 6월 16경기의 타율을 0.289까지 끌어올린 나지완은 7월 14경기에서는 0.326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 반전 이룬 이범호...반전 필요한 나지완

홈런 3개를 보냈다. 반면 이범호는 20경기에서 0.196의 타율로 8타점을 더하는데 그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7월 21경기에서 0.387의 타율과 함께 9개의 홈런을 터트리면서 이범호의 반전이 시작됐다. 꾸준히 이어진 한 방으로 지난 15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는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 타이(26호) 기록을 만들었다. '나지완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

다. 나지완은 15일 경기까지 0.234의 타율을 보이며 여전히 2할 초반에서 제자리를 돌고 있다. 프로 2년차인 2009년 23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린 뒤 6년 동안 계속됐던 두 자릿수 홈런 기록도 중단 위기에 몰려 있다. 남은 홈런 수는 3개.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그는 김주찬에게 지명타자 자리를 내준 채 대타 자원으로 가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기회

에서도 쉽게 타석에서 물러나면서 나지완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 반전이 절실한 나지완이다.

김기태 감독은 시즌에 앞서서 선수단에 결승선을 강조해왔다. 16일에도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의 마지막이 중요하다. 출발선보다 마지막에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결승선을 이야기했다.

한 타석, 한 경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감독은 "(내가 야구를 하던 때보다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다. 우리 때

는 2000안타를 어떻게 때릴까했는데 서건창(넥센)이 기록을 세웠고, 2000안타도 나오고 있지 않나. 젊은 선수들이 5년, 10년 뒤 계획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 야구를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기록을 생각하다 보면 한 타석, 한 경기 정말 아깝고 생각이 날 수도 있다"면서 절실함을 강조했다.

비슷했던 출발이지만 이범호와 나지완의 엇갈린 현재. 아직 이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았고,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17번)와 동료들이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9회 미치 모어랜드의 끝내기 희생플라이가 나온 뒤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추신수의 텍사스, 지구 단독 1위 올랐다

### 휴스턴에 끝내기승...추, 14경기 연속 출루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가 마침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에 등극했다.

텍사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5-5로 맞선 9회 미치 모어랜드의 끝내기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6-5로 승리했다. 이로써 77승 67패를 거둔 텍사스는 77승 68패에 그친 휴스턴을 0.5경기 차로 밀어내고 지구 선두로 뛰어올랐다.

선발진의 붕괴 탓에 올 시즌 전문가 전망에서 지구 하위권으로 박한 평가를 받은 텍사스가 단독 1위로 올라서는게 올해 처음이다.

시즌 내내 선두를 질주한 휴스턴에 최대 9.5경기나 뒤졌지만, 올스타 휴식이 끝난 뒤 35승 21패라는 높은 승률을 올리며

차근차근 따라잡은 끝에 맞대결에서 마침내 대역전에 성공했다. 스포츠 통계 전문회사인 엘리어스 스포츠에 따르면 한 해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메이저리그에서 144경기를 치른 뒤에 시즌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선 팀은 1969년 이래 텍사스가 6번째다.

정규리그를 18경기 남긴 가운데 텍사스가 끝까지 지구 1위를 지키면 포스트시즌 디비전시리즈(5전 3선승제)에 직행한다.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얻었다. 그는 14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고 시즌 타율 0.257을 유지했다.

같은 텍사스 주를 연고로 한 라이벌로서 사실상의 지구 우승 결정전을 치르는 만큼 양팀은 총력전을 펼쳤다. 모두 합쳐 13명(휴스턴 8명, 텍사스 5명)의 투수가 출동해

상대 타선의 예봉을 꺾는 데 주력했다. 전날 패배로 선두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휴스턴이 마운드 몰락 공세로 필사적으로 맞섰다. 텍사스의 창이 더 날카로웠다.

텍사스가 1회 휴스턴 우완 선발 투수 콜린 맥휴의 난조를 틈 타 4점을 뽑자 휴스턴은 2회 초 텍사스 좌완 선발 데릭 홀랜드를 집중 공략해 3점을 따라붙었다. 휴스턴이 4회 2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자 텍사스는 곧바로 1점을 만회해 5-5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텍사스는 9회 선두 프린스 필더와 후속 에드ريان 벨트레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1·3루에서 나온 미치 모어랜드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았다.

추신수는 1회 무사 2루에서 볼넷을 골라 대량 득점에 힘을 보탠 뒤 2회 우전 안타로 1루를 밟았다. 4회에는 심판의 석연치 않은 스트라이크 판정 탓에 삼진으로 돌아섰고 6회와 8회에는 연타석 중견수 뜬공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나카무라 코치 “흥구·용환 안타수 만큼 새치가 늘었어”

### 덕아웃 T 특특

▲오늘 그럼 뵈까? = 스승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제자다. 이범호는 지난 15일 한화 김민우를 상대로 시즌 26호이자 통산 248호포를 기록했다. 통산 13번째 250홈런에 두 개를 남겨두고 있는 이범호는 김기태 감독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프로 야구 사상 첫 좌타자 홈런왕 출신인 김 감독은 현역 시절 15시즌 동안 249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이범호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취재진의 농담에 김 감독은 “오늘 그럼(이범호를) 뵈까?”라고 답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칼을 얼마나 갈았는지 보시죠 = 16일 한화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엔트리 변동이 있었다. 김기태 감독은 “강한울의 유격수 복귀전을 보시죠”라며 엔트리에 변동에 대해 언급했다. 강한울은 프로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 유격수 김선빈의 부상 속에 이름을 알렸었다. 올 시즌에도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자리를 선점했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한동안 1군에서 자취를 감췄다. 김 감독은 미국 교육리그에 참가하는 윤완주를 대신해 강한울을 불러들였다. 김 감독은 “코칭스태프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칼을 얼마나 갈았는지 보

시죠”라며 웃었다. 1군 등록과 함께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하게 된 강한울은 “무심(無心)과 초심(初心)으로 짐작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타 수만큼 늘어난 것 같다 = 한국에 와서 부쩍 새치가 늘었다는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 새치가 많이 보인다는 취재진의 이야기에 나카무라 코치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예 다 (이)흥구와 (백)용환 덕분이다. 돌이 친 안타 수만큼 새치가 늘어난 것 같다. 김주찬과 필의 안타까지 기여를 했으면 큰일날 뻔했다”는 농담을 하고 그라운드로 향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인지 “상금왕·올해의 선수 욕심나네”



### 국내 대회 집중...日 메이저·LPGA 챔피언십에는 참가

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 비양 챔피언십에 참가하고 귀국한 전인지는 앞으로 남은 KPGA투어 대회 8개와 3개 대륙 국가대항전 등을 대부분 참가하기로 일정을 짰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LPGA투어 '아시아스위그' 5개 대회 가운데 인천 영종도 스키야드7골프장에서 열리는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만 출전하고 나머지 4개 대회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내년 LPGA투어 출전권을 받은 전인지는 올해도 상당수 LPGA투어대회 초청장을 받았지만 브리티시여자오픈과 에비앙 챔피언십 등 메이저대회만 출전했을 뿐 나머지 대회 초청은 정중하게 사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 우승자 자격으로 초청 받은 JLPGA 메이저대회 일본여자오픈과 LPGA투어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은 참가한다. 일본여자오픈은 한국어 자오픈과 US여자오픈을 차례로 제패해 '3개국 내셔널 타이틀 석권'이라는 진기

록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 출전을 결심했다.

LPGA투어 챔피언십은 KPGA투어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열린다. 이 대회도 예초 출전 계획이 없었지만 대회를 전후해 내년 LPGA투어에 합류하는 신인 선수 오리엔테이션이 열려 겸사겸사 나가기로 했다. KPGA투어 대회 결정은 일본여자오픈과 겹치는 OK저축은행 대회 한번 뿐이다.

전인지가 올해 남은 일정을 KPGA투어 위주로 짤 것은 한번 뿐인 KPGA투어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수상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인지는 올해 상금과 올해의 선수, 다승, 평균타수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이후 열린 5개 대회 가운데 3개 대회를 불참하면서 추격의 발미를 내쳤다.

전인지는 올해 처음 열리는 3개국 대항전을 치르는 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시즌에 대비한 체력훈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